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7월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 감소...6월에도 상승세 하향 조정
- NYT: 1백50억 규모의 일본 제철의 US 철강 인수안은 왜 위험할까?

#### [미국 금융]

- Bloomberg: 파월 의장의 금리 전환 발언에 트레이더들 인하 폭과 경로로 논쟁
- WSJ: 잭슨 홀 발언 이후 금 랠리 계속된다
- WSJ: 비트코인 6만5천불로 상승... 파월의 금리 인하 전환에

#### [미국 대선]

- Bloomberg: 한국은행, “트럼프의 새 중국 관세로 한국의 수출 타격 받아”
- WSJ: 미 대선 법인세율 변화가 회사 성장과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 [미국 생활]

- WSJ: 인플레이션은 빈곤층에 가혹하다... 최근 연구는 반대 결과

#### [에너지]

- Bloomberg: 리비아 판매 중단으로 유가 급등

#### [자동차]

- WSJ: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구매자마음 사로잡다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캐나다, 중국 전기차와 철강에 관세 타격
- WSJ: IBM, 중국내 연구개발 부문 철수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NBusiness: 미국인들 신학기 쇼핑에 390억불 지출 예상
- CNNBusiness: 레드 랍스터, 23개 매장 추가 폐쇄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 [미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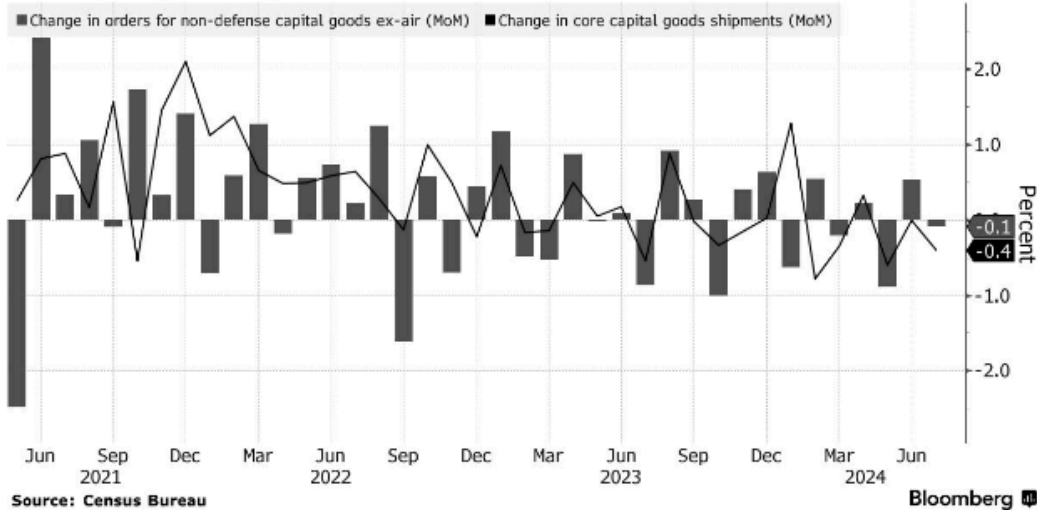
### **Bloomberg: Orders for US Business Equipment Fall After Downward Revision**

#### **7월 미 비즈니스 장비 주문 감소...6월에도 하향 조정**

- 미 비즈니스 장비를 위한 제조 주문이 7월에 감소했으며 그 전달인 6월에도 증가치가 하향 조정되어 기업들이 관련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 7월의 경우 항공기와 군사 장비를 제외한 장비 투자를 측정하는 이른바 핵심 자본재 주문 총규모는 6월에 0.5% 조정치로 증가한 후 0.1% 줄었다고 월요일 연방 상무부는 발표했다. 이 데이터는 인플레이로 조정되지 않은 수치다.
- 3년 이상 사용되는 이른바 내구재 모든 품목의 주문은 9.9% 급등했다. 운송장비를 제외한 주문은 0.2% 하락했다.
- 그러나 주요 금속과 컴퓨터 전자 장비 등의 주문이 감소했으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도 마찬가지다.

**US Orders for Business Equipment Declined in July**  
Core capital goods shipments also decreased



Bloomberg 기사

**NYT: Why Nippon Steel’s \$15 Billion Takeover of U.S. Steel Is in Peril**  
1백50억 규모의 일본 제철의 US 철강 인수안은 왜 위험할까?

- 지난해 12월 일본 제철은 US 철강을 1백49억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액은 US c 철강의 당시 주가보다 40\$의 프리미엄이 붙은 금액이다.
-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일본제철을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미국 경제의 핵심이었던 US 스틸의 ‘잠재적인 구원자’리라고 칭찬했다. 그러나 거의 즉각 반대에 부딪혔다.
- 미 양당 정치인들은 외국 회사가 인수하는 데 반대했고, 타이밍 면에서 11월 미 대선 승자를 결정하는 펜실베니아주의 US 철강의 노조가 반대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노조와 상의하지 않은 데 대한 반발이 컸다.
- 이번 인수 건은 차기 미 대통령에 달려 있으며 글로벌 철강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일 경제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노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인수에 반대하고 있다.

NYT 기사

**[미국 금융]****Bloomberg: Powell's Pivot Leaves Traders Debating Size, Path of Rate Cuts****파월 의장의 금리 전환 발언에 트레이더들 인하 폭과 경로로 논쟁**

- 파월 연준의장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채권 트레이더들은 첫 번째 금리 인하의 폭과 금리 인하의 미래 경제에 대한 베팅에 주목하고 있다.
-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폭과 인하 경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그는 인플레이 호조를 언급했으며 금리 인하 조치와 관련된 가이드로서 노동시장의 상황을 연준이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당일 금요일에 미국채 수익률과 달러는 하락하고 주가는 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청신호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 일부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폭과 관련하여 25베이시스 포인트와 50베이시스 포인트 사이에 여전히 논쟁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올해 전체를 보면 스와프 계약 금리는 총 1% 포인트 예상된다. 올해 연준이 3차례 회의가 남은 가운데 트레이더들은 한차례 인하는 큰 폭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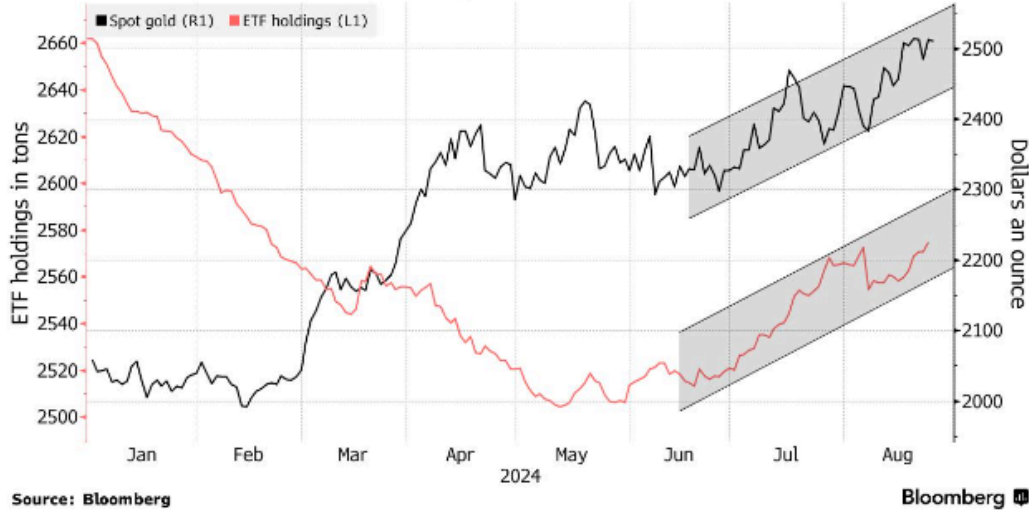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Gold Bulls Celebrate Jackson Hole as Powell Clears a Path Higher**  
**잭슨 홀 발언 이후 금 랠리 계속된다**

- 온스당 2천5백불을 상회하고 있는 금값은 추가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채권 금리 하락과 같은 전통적인 원인 계속되고 서구 투자자들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 한마디로 연준의 잭슨홀 컨퍼런스는 금값에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이다. 금값은 주요 원자재에서 가장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귀금속이다.
- 올해 상반기의 강력한 중앙은행과 아시아의 매입에 힘입어 달러 상승, 채금 금리 상승, 금에 기반한 ETF의 3자금 유출로 인한 하락을 상쇄했다. 이제 이들 3가지 요인이 금값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 Gold Gets Boost as ETF Flows Turn Positive

Investors start to show interest after years of outflows



WSJ 기사

### WSJ: Bitcoin Flirts With \$65,000 on Powell Pivot, Streak of ETF Flows 비트코인 6만5천불로 상승... 파월의 금리 인하 전환에

- 비트코인이 지난 3주 내에 처음으로 6만5천불에 도달했는데 이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는 가운데 미 ETF의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도 한몫하고 있다.
- 오늘 월요일 오전에 \$65,030까지 상승하다가 현재 약간 하락 중이다. 지난주에도 비트코인이 7.4% 상승해 지난 7월 중순 이래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 파월의 금리 인하 예상 발언으로 지난 한 달여 기간중에 순자산 2억5천2백만달러가 12개의 현물 미 비트코인 ETF로 유입되었다.

### Powell's Signal Buoy Bitcoin



## WSJ 기사

## [미국 대선]

**Bloomberg: Trump's New Tariff on China Would Batter South Korean Exports, Central Bank Report Says****한국은행, “트럼프의 새 중국 관세로 한국의 수출 타격 받아”**

- 도널드 트럼프의 북경에 대한 새로운 관세 투자를 한국이 대중 수출의 부정적인 여파는 이전에 미중 무역 전쟁 여파보다 적어도 두배 이상 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다.
- 한국은행 조사진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의 주요 공급 국가인 한국은 중국산에 60%의 관세가 적용될 경우 중국 수출이 7% 감소해 지난 2018년 유사한 수출 감소 폭 3%보다 배 이상 피해를 받는다는 것이다.
- 한편 UBS Group AG 분석가들에 따르면 중국산에 60% 관세는 중국의 연간 성장률은 0.5% 이상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 Bloomberg 기사

**WSJ: How a Corporate Tax Rate Change Could Impact Companies' Growth, Investment****미 대선 법인세율 변화가 회사 성장과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 해리스는 현재의 법인세율 21%를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트럼프는 기업 책임자들에게 20%의 법인세를 원하고 있다면서 낮으면 15%로 세율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의 의회에서 완전한 다수당이 되지 않은 한 원하는 세율을 시행하기가 쉽지 않다.
- 세율이 높아지면 10년 전보다 더 큰 부담이 된다. 지난 2017년 21% 관세 인하가 세율 기반을 넓혀 특정 소득에 대해 더 많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 회사 재무 책임자들은 높은 세율이 현금 흐름, 투자 전략 등을 포함한 대차 대조표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모든 달리는 투자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감소시킨다고 말했다.

## WSJ 기사

## [미국 대선]

## WSJ: Inflation Usually Hits Harder for Poor Families. For a Couple of Years, It Didn't.

### 인플레이션은 빈곤층에 가혹하다... 최근 연구는 반대 결과

-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비자물가지수와 다른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 저소득층은 임대료와 같은 필수 지출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다.
- 그러나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경제학자 Xavier Jaravel 연구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몇 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물가는 소득 기준 가장 낮은 하위층 10%는 13.5%, 하위 두번째 층은 13.3%, 상위 1%는 13.5% 상승했지만, 그 사이에 있는 6번째층에서 7번째 층은 14.8%로 더 많이 상승했다.
- 물가 상승률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가격이 132% 상승한 휘발유와 30% 상승한 자동차였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수록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 하지만 2022년 이후 휘발유 가격과 자동차 가격이 낮아지면서 저소득층의 인플레이션이 다른 그룹보다 높아졌다. 연구에 따르면 2022년 초부터 작년 말까지 소득 기준 하위 25% 물가는 82% 상승했지만, 나머지 75%의 물가는 74% 상승했다. 단순히 물가 상승률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층의 구매력 성장이 더디다는 것을 뜻한다.

WSJ 기사

### [에너지]

## Bloomberg: Oil Jumps as Libyan Call to Halt Sales Compounds Mideast Tension

### 리비아 판매 중단으로 유가 급등

- 리비아 동부 정부의 수출 중단 후 유가가 상승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81달러 이상으로, 서부 텍사스 중급유는 77달러 이상으로 상승했다.
- 리비아 동부 정부는 중앙은행 통제권에 대한 정치적 갈등이 깊어지면서 모든 석유 생산과 수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UBS Group AG 상품 분석가 Giovanni Staunovo는 실제 생산 손실이기 때문에 가격 혼란이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이스라엘이 일요일 헤즈볼라를 공습한 이후 유가는 이미 상승세였다. 미국 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으로 인해 연초보다 7%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 [자동차]

## WSJ: The Plug-In Hybrid Car Starts to Win Over Buyers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구매자마음 사로잡다

-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출시 계획을 늦추면서, 20~40마일 배터리로 주행하다 가스 엔진으로 전환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주목받고 있다.
- 포드 자동차는 지난주 전기 대형 SUV 계획을 취소하고 대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검색 사이트 Edmunds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 중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2019년보다 2배 증가한 47개에 달한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정부의 지원으로 하이브리드도 저렴한 옵션으로 제공될 수 있다.
- Cox Automotive는 올해 1분기 미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판매량이 작년 1분기보다 59% 상승했으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22년 이후 2배 증가한 2.4%라고 밝혔다. 컨설팅 회사 AlixPartners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올해 시장 1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자동차 업계는 연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변화로 인해 더 많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출시될 것이라 예상한다. 환경보호국은 3월 새로운 배출 기준치를 완성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기준치 달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WSJ 기사

## [글로벌 경제]

## Bloomberg: Canada to Hit China With Tariffs on Electric Vehicles, Steel 캐나다, 중국 전기차와 철강에 관세 타격

- 캐나다가 중국 전기차, 알루미늄, 철강에 관세를 부과해 서방과 국내 제조업체 보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 캐나다 총리 트뤼도는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누리며, 캐나다의 핵심 산업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미국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로 작년 생산한 경차 150만 대 대부분 미국으로 수출됐다.
- EU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지난주 발표된 초안에 따르면 상하이자동차에 36.3% 추가 관세를, Geely 자동차 홀딩스에 19.3%, BYD에 17% 관세가 부과된다. 테슬라는 중국산 차량에 9%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Bloomberg 기사

## WSJ: IBM Shuts China R&D Operations in Latest Retreat by U.S. Companies

### IBM, 중국내 연구개발 부문 철수

- IBM은 미국 기술 기업들의 중국 철수에 따라 중국 연구개발 부서를 폐쇄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으로 인해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중국 사업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일부는 다른 국가로 사업을 이전하고 있다.
- IBM은 지난해 중국 경쟁사의 서비스 업그레이드와 중국 구매자들의 국산 이용 캠페인으로 인해 매출이 19.6%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들은 인공지능과 같은 전략적 분야에서 미국 정부의 엄격한 조사를 받고 있다.
- 한때 IBM은 중국을 글로벌 성장 시장의 R&D 허브로 여겼지만, 인건비 상승과 규제 때문에 더 이상 매력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IBM은 20년 이상 운영해 온 중국 연구소를 폐쇄했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CNN Business: Americans set to spend a total of \$39 billion on back-to-school shopping this year

### 미국인들 신학기 쇼핑에 390억불 지출 예상

- 전미 소매업 연맹(NRF)에 따르면 작년 신학기 쇼핑을 위해 415억불이 지출됐다. 2021년 역대 최고치보다 약 12% 상승한 수치다. 물가 상승, 노동 시장 강세, 인플레이션 둔화,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이 영향을 미쳤다. 올해 신학기 지출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88억불로 예상된다.
- 할인 행사: NRF 설문조사에 따르면 41%의 응답자가 할인 행사를 찾고 있다.
- 공급이 원활하고 소비자 지출이 늘면서 디스인플레이션 (완만한 가격 하락) 또는 디플레이션(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 조사 회사 Circana는 일부 학용품이 작년보다 저렴해졌다고 밝혔다. 스티커 메모지는 22%, 종이 20%, 크레용 19%, 연필은 13% 하락했다.
- 낙관적 신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1년 넘게 주당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상회하고 있으며, 소비자 지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 KMPG 미국 소비자 및 소매 부문 리더 Duleep Rodrigo는 “소비자들의 긍정적인 정서가 많이 나타났다. 금리 인하와 할인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 소비 습관 변화: 팬데믹과 인플레이션 이후 소비자들은 지출에 냉정해졌다. 비싸지만 최고인 물건, 불필요한 지출보단 현명한 소비를 계획한다. 플로리다주 게인즈빌에 사는 Lisa Castruita는 “과거에 비해 신학기 지출이



60~70% 줄었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다. 현명한 결정을 해야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 CNN Business: Red Lobster is closing another 23 restaurants. Here's where they are 레드 랍스터, 23개 매장 추가 폐쇄

- 레드 랍스터 해산물 레스토랑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 20여개 매장이 추가로 문을 닫을 예정이다. 올여름 초 이미 100개 이상의 매장이 문을 닫았고, 작년 650개 지점에서 500개 매장만 남게 됐다.
- 잘못된 관리, 경쟁, 인플레이션 등 요소로 인해 레스토랑 업계의 선구자였던 레드 랍스터가 무너졌다. 레드 랍스터는 올해 5월 파산 신청을 했다.
- 전 경영진은 인터뷰에서 2020년 레드 랍스터의 주요 주주가 된 타이 유니온의 잘못된 전략으로 큰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불짜리 새우 무한 리필 메뉴 때문에 1,100만불 손실을 보았다고 밝혔다.

CNNBusiness 기사

### '금리인하 시사' 비둘기파 파월 수혜자산은..."채권 투자 유망" "모기지 금리 인하로 美주택시장 개선...비싼 가격,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가 마무리되고 다음 달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으면서, 채권 투자 등이 유망할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경제매체마켓워치는 2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23일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때가 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 자산을 찾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연준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2022년 초까지만 해도 0.25%였던 기준금리 상단을 공격적으로 인상, 지난해 7월 5.5%로 끌어올린 뒤 동결을 이어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